

'구슬 연꽃'으로 피어난 한국 문화·정신

10 February, 2016 | 함혜리



구슬로 만든 설치 작품 앞에 선 장미셀 오토니엘.

국제갤러리 제공

'구슬 연꽃'으로 피어난 한국 문화·정신

佛 조각가 오토니엘 '검은 연꽃' 전시회
"순수함·어두움 결합... 시적 느낌 강조"

"한국의 전통 건축과 공간에 피어 있는 연꽃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성이라는 강한 상징성을 내포한 연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은 매혹적이고도 경이로웠습니다."

다양한 소재의 구슬을 사용한 추상 조각으로 알려진 프랑스 조각가 장미셀 오토니엘(52)이 '검은 연꽃'(Black Lotus)이라는 제목으로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 3관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풍부한 은유와 조형 감각이 농축된 유리 조각, 설치 작품, 회화 등 신작 10점이 선보인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탐구되고 있는 꽃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꽃은 내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꽃이 지닌 숨은 의미나 상징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경이의 원천은 이처럼 실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전시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연꽃이 상징적으로 지니는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탐구했다. 전시장에서 만난 오토니엘은 이번 전시회 제

목을 모순 그 자체인 '검은 연꽃'으로 지은 이유에 대해 "연꽃이 주는 순수함과 검은색이 지닌 어두움을 결합해 시적인 느낌을 강조하려 했다"면서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랭보의 '보이지 않는 찬란함', 제라르드 네르발의 '우울함의 검은 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에는 보라, 검정, 파랑의 구슬로 연결된 조각 작품들이 설치돼 있다. 커다란 구슬을 연결한 작품들은 각각 봉우리 형태이거나 반쯤 피거나 활짝 핀 연꽃을 표현한다. 생티에엔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오토니엘은 세르지퐁투아즈 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다루다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를 이용해 작업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전시에서 백금 박을 여러 겹 입힌 캔버스에 짙은 검은색 석판화 잉크로 그린 회화 작업 '검은 연꽃'을 처음 선보였다.

2011년 국내에서 첫 개인전 '마이 웨이'를 개최한 바 있는 오토니엘은 공공미술 작가로 미국과 유럽에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엔 프랑스 앙굴렘에 있는 성베드로대성당의 성물함과 유물함 옆의 성상을 현대미술 작가로는 처음으로 디자인하기도 했다. 7년이 소요된 이 프로젝트는 올봄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